

‘무사안일’ 무안공항

새만금공항 뜨고 김해공항 나는데 광주공항과 통합 ‘미적’

정부 투자 멈춰 서남권 거점공항 ‘무색’...지역민 불편 가중

무안국제공항이 광주(민간)공항과 통합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동남권의 김해공항에 대한 정부 투자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전부의 새만금공항까지 꿈꿔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오는 8월까지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 이에 맞춰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수요 미흡을 이유로 개항 이후 신규 투자가 멈추면서 서남권의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여행수요를 김해공항이 흡수하고 있는 등 지역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수시자금으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새만금공항, 서산공항 등 4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만금공항은 최근 동남권신공항과 함께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치적 의미까지 더해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새만금 공항을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제5차 계획에서는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추이를 감안해 새만금 지역 공항 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새만금공항이 추진되면 서남권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정치권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 전문가 의견,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해 다음달까지 공항 통합에

관한 해법을 내놓으면, 관련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 과거보다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대구 군공항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동남권신공항 등과 연계되면서 장기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검토 및 대상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단기간 내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안공항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공항은 지역 내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항공 수요까지 점유하고 있다. 광주에서 김해공항 직통버스노선이 최근 개통할 정도다. 지난 5월 김해공항은 국제선

운항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제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14.1%가 증가한 반면 무안공항은 18.9%나 감소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광주전남연구원원이 해법을 내놓더라도 현재의 여건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그것을 토대로 국토부, 국방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를 설득해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맛비에 불어난 광주천 ‘조심조심’ 장맛비가 잠시 주춤한 6일, 광주 서구 양동 복개사가 아래 광주천 징검다리를 시민들이 조심하 건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담양·보성·무안·영광·완도 이어...곡성군 ‘채무 제로’ 선언

현재 27억9600만원

기금 일제 정비 나서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담양, 보성, 무안, 영광, 완도 등 5개 군이 ‘채무 제로’를 선언한 데 이어 곡성군도 2017년을 채무 없는 지자체로 시작하기 위해 기금 일제정비에 나섰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현재 22개 시·군의 총채무액은 3621억원에 달한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빚을 내기며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미분양, 시설 적자 등에 허덕이면서 채무가 쌓인 것이다. 가장 채무가 많은 곳은 여수시로 858억원, 다음이 817억원의 목포, 나주(326억원), 신안(322억원), 순천(205억원), 화순(200억원), 진도(180억원), 장성(145억원) 등의 순이다. 나머지 강진(34억원) 등 10개 시·군은 100억

원 미만이었다. 담양, 보성, 영광, 완도 등이 채무가 없었고, 63억원의 채무가 있던 무안군이 지난해 이를 모두 갚았다.

곡성군은 민선 6기 유근기 군수 취임 당시 92억9600만원에 달한 곡성군의 채무를 2년 동안 65억원을 갚아 현재 채무는 27억9600만원이 남았다. 군은 현재 운용한 9개 기금 중 법정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예산에 대해 재정상태와 운용성과를 분석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해 채무상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역개발채권발행행위를 포함한 전남도의 통합부채는 2014년 말 현재 1조7967억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59억8700만원이 줄었다. 전남도는 이들 시·군의 채무 잔액, 수입 규모 등을 감안해 채무한도액을 정하고 그 이상 채무를 발생하려고 할 경우 행정자치부나 의회 승인을 조건으로 해 억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전남도내 시·군 가운데 채무가 위험한 수준까지 간 곳은 없다”며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군들이 자체 노력을 기울이면서 채무 제로 지자체가 향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

창작 뮤지컬 빨래 광주 공연

10월 1·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함께하는 작품입니다.

‘얼룩 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 같은 내일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삶에 지친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창작 뮤지컬 ‘빨래’가 광주를 찾아옵니다. <관련기사 16면>

서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나영과 몽골 이주 노동자 송룡과 등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낸 ‘빨래’는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 유쾌한 웃음과 감동이

지난 2005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빨래’는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지금까지 3000회 공연, 5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일본과 중국에도 진출했습니다. 또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 작사·극본상, 제4회 더뮤지컬 어워즈 극본·작사·작곡상을 수상하고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본이 실리는 등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유쾌하고도 가슴 따뜻한 뮤지컬 ‘빨래’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자: 10월 1일(토)·2일(일)
-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주)광주일보사
- 주관: (주)문커뮤니케이션
- 티켓 가격: 1층 5만 원, 2층 3만 원
- 예매: 인터파크·티켓링크
- 문의: 062-220-0541



光州日報社

광주, 미디어아트 육성 복합센터 조성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플랫폼 센터

광주시가 미디어아트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AMT·Art Meadia-Technology)센터’를 조성한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단도 꾸려진다. <관련기사 17면>

광주문화재단은 6일 광주시 동구 전 통문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남구 아시아문화커뮤니티 공영(광주공영 입구 주차공간)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예산 290억원(국비 145억원·145억원)이 투자된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될 이 시설은 광주시가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미디어아트 부문)에 가입한 뒤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창작·교류·전시·체험 공간이다. 지하 1층에는 유네스코 미디어 파크, 2층에는 미디어아트 창작·지원 시설, 3층~5층에는 미디어아트 산업지원 공간, 스튜디오, 레지던스(작가 입주공간)가 마련된다. 신설될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사업단은 광주시 소속으로 두되, 실제 업무는 문화재단이 위탁 수행한다. 시는 이를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오는 8월께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에는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사업 추진, 미디어아트 문화·관광·레저 기반 구축 등 업무가 포함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역대급 지원...한빛원전 안전인가 ▶6면

그림편지-김해성 시베리아 ▶18면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LS 400 2,996cc, 1,809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0km/ℓ(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CLS 63 AMG 5,461cc, 1,93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6km/ℓ(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38g/km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CLS 63 AMG S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